

따뜻한 벤치... 야광 횡단보도... 모기 차단 맨홀...

광주 남구 직원 아이디어 만발

19건 지식재산권 획득·5건 특허 등록

광주시 남구 보건소 박경철 보건행정과장은 '괴짜 남편'이자 '발명가 과장님'으로 통한다. 발명에 관심이 많아 이것저것 뜯딱딱 만들어내는 그가 올해는 '음식물 찌꺼기 처리장치'로 특허등록을 마쳤다. 집안일을 돋기 위해 아침마다 쓰레기를 직접 내다 버리면서 음식물을 찌꺼기 처리하는 게 불편해 시작했던 발명이었다.

이 장치는 싱크대에 벼려진 음식물을 1차적으로 한곳에 모아 분쇄해 떨어지도록 한다. 이 찌꺼기는 2차 처리 과정에서 압축되어 물기가 제거돼 쓰레기통으로 들어간다.

광주광역시 건설관련부서의 나용

선(41·건축 7급)씨는 지난 10월 말까지 남구청에서 근무하면서 2건의 특허 등록을 냈다. 기존의 소화기 재사용이 불가능해 체험 교육이 어렵다는 단점을 보완, 소화기 안에 소화용 재인 분말 대신 물을 담아 직접 압력을 조절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만든 '교육용 소화기'는 재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학교 교육·민방위 훈련용으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다.

그는 또 스프링을 이용해 '맨홀 역류방지 장치'를 만들었다. 이 장치는 평상시에는 역류방지장치(뚜껑)가 닫혀 있어 하수구에서 모기가 물러오거나 맨홀로 담배꽁초를 버릴 수 없

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비가 와 물이 차면 자체 하중에 의해 스프링이 작동해 맨홀이 열리고, 역류시에는 하수도 압력에 의해 맨홀 뚜껑이 닫히게 된다.

이들의 아이디어가 결실을 끊게 된 것은 광주시 남구가 펼치고 있는 '직원 1지식' 운동 덕분이다. 일종의 지식재산출 사업으로 공무원이 1개 이상의 지식재산권(특허·실용신안권 등)을 갖도록 하자는 운동이다. 지난 해 3월 남구청의 '지식재산도시' 선포 이후 주민지식재산 아카데미를 다녀간 주민 수는 880명으로 여기서 창출한 지식재산권은 19건, 이중 특허 등록은 5건이다.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현실로 이루어내도록 돋고 있는 기획감사실 지식

재산팀의 박광만(39·행정7급)씨도 '횡단보도 발광장치'를 선보였다.

일출·일몰시간에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을 보고 건널목에 야광·발광 페인트를 코팅하는 아이디어로 내놓았다. 운전자들이 횡단보도를 쉽게 인식하도록 해 사고를 줄여보자는 생각이었다. 또한 횡단보도에 열선을 깔아 겨울철 쌓인 눈 때문에 횡단보도가 가려지는 것을 방지하도록 했다.

지식재산도시를 선포했던 황일봉 청장은 창작감자센터를 부착한 '벤치'를 만들었다. 사람들의 창작 여부에 따라 벤치에서 음악이 나오고, 좌판과 등받이에 온열을 제공하는 발열체를 부착해 겨울에도 벤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먼지 하나에서도 범인 흔적 찾는다

내일 과학수사의 날 맞는 광주경찰청 CSI

광주지역에서 최근 발생한 절도 사건 현장에서 찾은 흔적은 범인이 마시고 버린 것으로 보이는 종이컵 하나. '제58주년 과학수사의 날'을 이를 앞둔 2일 오후 광주시 동구 광산동 광주지방경찰청 3층 현장 증거분석실에 모인 과학수사계(계장 김두환 경정) 감식 요원들 사이에는 편안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지문 분석 전문가 조현철(40) 경사는 '닌하드린'(ninhydrin) 용액에 담근 종이컵을 판сет으로 조

심스럽게 집어 불에 달구기 시작했다. 지문이 푸른색이나 보라색으로 드러나는 '닌하드린 반응'을 하는지 보기 위함이다. 서서히 지문이 또렷해지기 시작했다.

찾아낸 지문은 사진 촬영 뒤 분석으로 옮겨졌다. 지문을 지문 속에서 거짓말을 찾는 '뇌기억반응 탐지기' 등 첨단 장비를 들여운 계획이다"면서 "용의자가 남긴 것이라면 먼저 하나님도 찾아 신속하게 범인을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



2일 광주지방경찰청 과학수사과 현장증거분석실에 모인 감식 요원들이 종이컵에서 용의자의 지문을 찾고 있다. 왼쪽부터 오복(여·33) 김시관·정희석(33)·엄기희(36)·홍간희(34)·조현철(40) 경사·신충호(36) 경장.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직장인 10명 중 8명

"내가 상사보다 잘나"

2일 취업교육사이트 잡스터디가 교육포털 에듀스파와 함께 직장인 437명을 대상으로 상사에 대한 부하직원의 평가에 대해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6.0%가 '상사보다 자신이 잘났다고 생각해 본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들이 이처럼 생각할 때는 '무능한 상사 때문에 자신이 일을 다 한다고 느낄 때'

(21.7%), '인격과 덕이 부족한 상사를 만났을 때'(20.8%), '비효율적인 업무지시를 내렸을 때'(15.8%) 등 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럴 때 직장인들은 '상사에 대한 존경심이 사라지고'(29.5%), '반감이 생긴다'(19.9%)고 답했다. /연합뉴스



너스 대표·희택
(토스터 창투 대표)·우택(엘엔비 테크 대표)·정희(목사)씨가 있다.

발인은 5일 오전 8시30분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장지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남서울공원. 연락처 (02) 3410-6916.

임종기 前의원 별세

임종기(林鐘基) 전 민한당 의원이 2일 오전 자병으로 별세했다. 향년 82세.

부안 출신인 임 전 의원은 제 8·10·11·12·13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민한당 원내 총무를 역임했다. 유족으로는 융택(메리츠 인베스트먼트 파트

복권웨딩을 2층 고운홀,
▲이채순씨 3남 김석중(SK케미칼 대리)군 김권필(전남일보 이사·경영본부장)씨 차녀 지연 양=3일(토) 오후 1시 KT빌딩 4층 예식홀.

▲정광호씨 차남 명훈(현대기아차 CL사업부)군 안영자씨(6녀 정용호(청호나이스 비서실)양=3일(토) 낮 12시30분 신양파크 호텔 1층 웨딩홀.

▲국형근(대동고교감)씨 장남 윤훈군 백호씨 장녀 은덕양=3일(토) 낮 12시40분 애벌루션웨딩컨벤션 3층 컨벤션홀.

생활 게시판

화족

▲국중호(목포대 생활과학부 예술체육대 학장)·윤영일(광주예술고교장)씨 장남 광운(동신여중 교사)군 김명순씨 3녀 은주양=3일(토) 낮 12시30분 신양파크 호텔 2층 웨딩홀.

▲김상옥씨 차남 문선군 정재명씨 장녀 미옥(청구종합건설 대리)양=4일(일) 오후 1시20분 경

효행·선행·면학·장애극복·예체능 등

'광주시 청소년 대상' 6명 선정

광주시는 2일 '광주시 청소년 대상'에 금호고 이윤준(17·2년)·교을·선정하는 등 부문별 수상자 6명을 확정했다.

이 군은 넉넉하지 않은 가정형 원에도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은 데다, 간암으로 투병하는 아버지에게 간을 이식해 회생하게 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 군은 또 각계에서 온 성금을 수슬비로 쓰고 남은 돈은 병원에 기탁했으며, 광주시민 백일장 최우수상과 자원봉사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효행부문은 부친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 입사를 앞두고 자신의 간을 이식해 준 성모·노성원(18·3년)군, 선행부문은 요양원을 정기적으로 방문·봉사해 온 대동과 이정훈(16·1년)군이 각각 선정됐다.

면학부문은 과학·수학·영어 등 각종 전국규모 경시대회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둔 고려중 양은규(15·3년)군, 장애극복 부문은 정신지체 장애를 이겨내고 교내 외 경진대회에서 수차례 우상한 광주선명학교 손은아(17·고등부 3년)에게 돌아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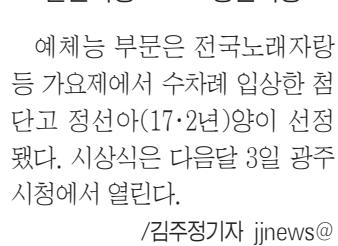
이윤준군
노성원군



이정훈군
양은규군



손은아군
정선아군



김주정기자 jjnews@

광주는 문화, 전남은 농업·해양 특화

남북교류 비정치적 분야에 치중해야

교류활성화 심포지엄

장했다. 특히 정 이사는 "지역 내 대북 교류협력 사업 전담 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북한의 정보와 협상 능력을 가진 전담팀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며, 전문 인력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지역자원에서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안정화가 중요하다며 "민간 기업 및 시·도민의 기금 모금 등 다양한 재원조달과 남북교류기금 지원을 매칭펀드(matching fund) 방식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효율적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열린 학술대회에는 동국대 이철기 교수와 전남대 장윤수 교수, 제주평화연구원 진행남 연구위원, 경기개발연구원 윤일문화센터 최용환씨가 참석했다.

/김필상기자 kps@kwangju.co.kr

도 급증할 것으로 보고, 2일 현재 발령 중인 단풍철 산악 안전사고 주의보를 '경보'로 상향조정했다.

소방방재청은 "지난 10월 하순 산악사고가 늘어난데다 막바지 단풍을 즐기기 위한 산행 인구가 일시에 산으로 몰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단풍철 산악 안전사고

주의보서 경보 상향 발령

소방방재청은 올해 단풍이 11월부터 남부지방까지 확산돼 전국이 단풍 절정기로 접어들면서 산악 안전사고

도 급증할 것으로 보고, 2일 현재 발령 중인 단풍철 산악 안전사고 주의보를 '경보'로 상향조정했다.

소방방재청은 "지난 10월 하순 산악사고가 늘어난데다 막바지 단풍을 즐기기 위한 산행 인구가 일시에 산으로 몰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도 급증할 것으로 보고, 2일 현재 발령 중인 단풍철 산악 안전사고 주의보를 '경보'로 상향조정했다.

소방방재청은 "지난 10월 하순 산악사고가 늘어난데다 막바지 단풍을 즐기기 위한 산행 인구가 일시에 산으로 몰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도 급증할 것으로 보고, 2일 현재 발령 중인 단풍철 산악 안전사고 주의보를 '경보'로 상향조정했다.

소방방재청은 "지난 10월 하순 산악사고가 늘어난데다 막바지 단풍을 즐기기 위한 산행 인구가 일시에 산으로 몰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도 급증할 것으로 보고, 2일 현재 발령 중인 단풍철 산악 안전사고 주의보를 '경보'로 상향조정했다.

소방방재청은 "지난 10월 하순 산악사고가 늘어난데다 막바지 단풍을 즐기기 위한 산행 인구가 일시에 산으로 몰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도 급증할 것으로 보고, 2일 현재 발령 중인 단풍철 산악 안전사고 주의보를 '경보'로 상향조정했다.

소방방재청은 "지난 10월 하순 산악사고가 늘어난데다 막바지 단풍을 즐기기 위한 산행 인구가 일시에 산으로 몰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도 급증할 것으로 보고, 2일 현재 발령 중인 단풍철 산악 안전사고 주의보를 '경보'로 상향조정했다.

소방방재청은 "지난 10월 하순 산악사고가 늘어난데다 막바지 단풍을 즐기기 위한 산행 인구가 일시에 산으로 몰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도 급증할 것으로 보고, 2일 현재 발령 중인 단풍철 산악 안전사고 주의보를 '경보'로 상향조정했다.

소방방재청은 "지난 10월 하순 산악사고가 늘어난데다 막바지 단풍을 즐기기 위한 산행 인구가 일시에 산으로 몰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도 급증할 것으로 보고, 2일 현재 발령 중인 단풍철 산악 안전사고 주의보를 '경보'로 상향조정했다.

소방방재청은 "지난 10월 하순 산악사고가 늘어난데다 막바지 단풍을 즐기기 위한 산행 인구가 일시에 산으로 몰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도 급증할 것으로 보고, 2일 현재 발령 중인 단풍철 산악 안전사고 주의보를 '경보'로 상향조정했다.

소방방재청은 "지난 10월 하순 산악사고가 늘어난데다 막바지 단풍을 즐기기 위한 산행 인구가 일시에 산으로 몰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도 급증할 것으로 보고, 2일 현재 발령 중인 단풍철 산악 안전사고 주의보를 '경보'로 상향조정했다.

소방방재청은 "지난 10월 하순 산악사고가 늘어난데다 막바지 단풍을 즐기기 위한 산행 인구가 일시에 산으로 몰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도 급증할 것으로 보고, 2일 현재 발령 중인 단풍철 산악 안전사고 주의보를 '경보'로 상향조정했다.

소방방재청은 "지난 10월 하순 산악사고가 늘어난데다 막바지 단풍을 즐기기 위한 산행 인구가 일시에 산으로 몰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도 급증할 것으로 보고, 2일 현재 발령 중인 단풍철 산악 안전사고 주의보를 '경보'로 상향조정했다.